

제주 중고생 절반 이상 “성적 욕설·농담 경험”

도교육청 올해 첫 ‘교육공동체 성인식 실태조사’ 결과 중고생 대부분 성폭력 예방 교육… 인식 변화 ‘긍정적’ “실제 성폭력 예방 도움 안돼” 응답도… 실효성 높여야

제주지역 중고생 10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인 욕이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이후 인식 변화를 긍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11일 본보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동체 성인식 실태조사 기초통계 보고서’에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에는 도내 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직원 527명과 중고교 재학생(2~3학년)

188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특정 학교를 정하지 않고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수조사’다. 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대상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응답자의 53.9%는 ‘친구들과 성적인 욕 또는 농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했다.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점수는 2.48점으로, ‘학교 내 문화’를 묻는 4개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친구들과 키나 몸매 등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2.21점)는 항목도 2점을 웃돌았다. 4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를 기준으로 한 점수다.

학생들의 ‘성폭력 인식’에 대한 종합점수는 1.81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나 행동만 성적 괴롭힘이라고 해야 한다’(2.35점)는 항목과 ‘연간의 폭력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2.25점)는 항목에선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성폭력 인식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3.9%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개념과 유형, 피해 상황 대처법 등을 알게 됐다는 ‘인식변화’ 종합점수는 3.45점으로, 대부분이 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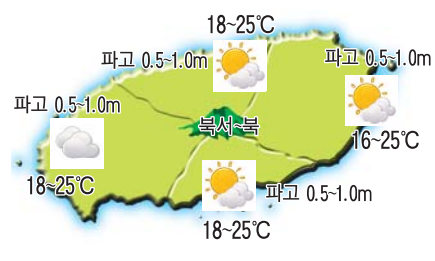
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제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0%였다. 그 이유로는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이어서’(38.3%),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23.1%), ‘교육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21.3%) 등이 지목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중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양성평등 담당 교사 연수에서도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수법 강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2일 금요일 음 4월 27일 (4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20%
10%	성산	20%
10%	고산	3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8/26℃
모레	흐림 19/26℃

구름많음

제주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8℃, 낮 최고기온은 25℃로 예상된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23	달뜨기 02:25
해질 19:44	달지기 16:36

물때	만조 07:37 20:51	간조 02:14 14:18
----	-------------------	-------------------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물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고의숙 당선인 인수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1일부터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에 마련된 플랫폼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민원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운영 기간은 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달 1일까지다.

접수된 내용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준비위 분과로 전달된다. 이후 내부 검토와 분석을 거쳐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그 결과는 준비위가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 과제를 선정해 보고할 때 발표된다.

고 당선인은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며 통합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며 “어떤 의견과 제안도 좋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도민들의 열망을 헤아리며 제주 교육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활짝 핀 수국 11일 수국이 만개한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찾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미상정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입장 발표

제12회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동

의안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도내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수화 정책의 후퇴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안을 상정하지

않은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월 30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44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유리기자

저지리서 반딧불이 활용한 야간관광 첫선

13-28일 ‘반딧불이 탐험대’… 마을 소득 창출 기대

초여름 밤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만

나고, 마을의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13~28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원에서 ‘2026 저지리 반딧불이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은 ‘반딧불이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해설사와 함께 꽃자왈을 걸으며 반딧불이의 생태와 서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초여름 밤 숲속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행사 마지막 주간인 26~28일에는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이 기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어드벤처’를 통해 참가자들은 ▷탐험 랜턴 만들기 ▷야광 가방 꾸미기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션을 성공하면 ‘덤부리 동전’

을 획득하고, 모든 동전은 행사장에 마련된 ‘빛나는 문방구’에서 다양한 보상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형광 놀이터’ 등 빛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와 체험 부스, 먹거리 공간도 운영된다.

반딧불이 탐험대 프로그램 예약은 온라인 채널인 덤부리 힐링센터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s://naver.me/GVE7Jugf>)에서 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영예로운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동홍동)



김대진

재 서귀포시 호남연합회 회장 김종곤 외 회원일동